

순간의 착상으로 성공

발명은 일상생활주변의 간단한

누구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착상할 수 있다. 다만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착상을 잡느냐, 놓치느냐가 성공을 좌우한다.

이는 다음 이야기에서만도 충분히 입증되고 남음이 있다.

미국인 「윌트·디즈니」는 「미키·마우스」의 고안으로 일약 억만장자가 되었다.

어느 날 가난에 쪼달리던 윌트·디즈니 부부는 세방에서 내쫓겨 공원 한 구석에 위치한 벤취에 앉아 앞일을 걱정하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

윌트·디즈니 부부는 한숨만 내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윌트·디즈니 부부를 억만장자로 만들어준 대 사건이 발생하였다.

윌트·디즈니가 평소애 귀여

워하던 생쥐가 그의 품속에서 갑자기 얼굴을 불쑥 내민 것이었다.

「무엇인가 놀란듯한 겁을 집어먹은 얼굴! 사람을 노려보는 그 눈초리!」

사실 가난에 쪼달려 온 윌트·디즈니 부부는 만화같이 우스꽝스럽게 생긴 생쥐의 모습을 보고 가난의 시름을 잊곤 하였다. 그런데 이날 품 속에서 얼굴을 내민 생쥐를 보는 순간 윌트·디즈니의 머리속에는 기발한 착상이 떠올랐다.

『옳지! 세상에는 우리와 같이 가난에 쪼달리며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들을 위해 이 생쥐의 모습을 만화로 엮어 낸다면 큰 위안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착상에서 윌트·디즈니는 「미키·마우스」라는 만화를 출판하게 되었다.

성공이었다. 그것도 대성공이었다.

세계 20여개국 출판사에서까지 번역 출판을 보게된 이 만화는 매달 3천만부라는 엄청난 판매부수로 출판계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가난에 쪼달리던 윌트·디즈

니 부부는 일약 억만장자가 되어 부귀와 명성을 전세계에 떨치게 되었다.

그러나 장본인 「윌트·디즈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키·마우스가 훌륭하다는 것보다 착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라는 살아 있는 교훈』이라고.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착상을 놓치지 않고 성공으로 이끈 경우는 윌트·디즈니 경우 이외에도 얼마든지 있다.

일본인 「마쓰시다」의 「쌍소켓트」 경우도 윌트·디즈니 경우와 비슷하다.

한평 남짓한 소켓트 제조공장을 운영하던 가난한 마쓰시다에게 어느 날 기발한 착상이 머리를 스쳐갔다.

『이 소켓트는 나사식으로 되어 있지만 단번에 쫓을 수 있는 직입식으로 바꾼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밤새워 시제품을 만든 마쓰시다는 다음 날 큰 전기회사를 찾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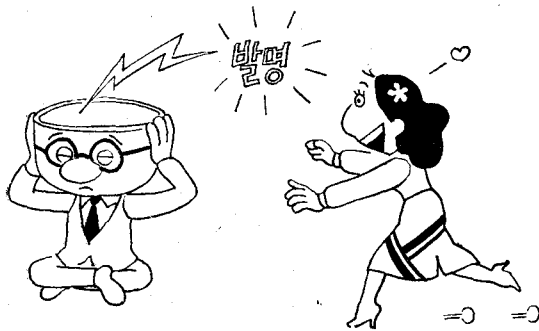
성공이었다. 즉석에서 5천개의 주문을 받았다. 그리고 이어 전 일본에 마쓰시다의 쌍소켓트가 날개돋힌듯 팔려나갔다.

한 발명인들

착상에서 비롯된다



김 상 현
〈본회 발명진흥부장〉



이리하여 마쓰시다는 오늘날 내쇼날로 유명한 일본의 「마쓰시다전기산업주식회사」의 사장이 되었다.

우리는 위의 두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한 마디로 세계제일 및 한국제일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와 행복도 순간의 기발한 착상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기발한 착상 또한 멀리 있는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위에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돈이 없다, 배우지 못했다, 취직이 안된다 등 불평과 절망 속에서 세상을 비판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해낼 수 없다.

발명은 돈이 많아서 하는 것

도 아니고, 많이 배워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만 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 발명인들에게서도 얼마든지 입증되고 있다.

세계 최초의 인조과일을 발명한 H사장이나, 깨지지 않는 유리제품인 정기스톤을 발명한 C부장도 가난한 농촌출신으로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으나 훌륭한 발명기업인으로 성공했으며, 이들 또한 순간의 착상을 놓치지 않고 발명으로 연결시켰다.

이같은 경우는 수없이 많다.

최근 본지를 비롯한 신문·방송에 소개되는 발명인들의 성공사례를 보아서 알겠지만

발명은 반드시 많은 학문적 이론을 토대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주변의 간단한 착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명예도, 지위도, 돈도, 행복도 모두가 인간의 착상과 창의력에서 비롯되었다.

또 인간에게 이처럼 큰 행운을 안겨주는 착상은 매일 매시간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주위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에 종사하든간에 1일 1안(一日一案)이라는 마음 가짐으로 살아야겠다.

『이 세상에 착상을 발명으로 연결하는 일처럼 즐거운 일은 없지요.』

발명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말이다.

『아! 이것이다.』

이렇게 착상을 잡았을 때의 쾌감! 그것은 필연적인 것으로 발명이란 실로 행복한 작업이다.

따라서 전문기술인이나 기능인은 물론 학생 및 가정주부등 국민 모두가 항상 자기 생활주변에서 보다 편리하고 유익한 것을 창안해 내는 과학적 사고를 가져야 하겠다.

이러한 국민적 노력이 결집될 때 우리의 산업기술은 발전의 밑바탕을 더욱 튼튼히 하여 선진도약의 디딤돌이 될 기술임국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